

숙명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 수시2차모집 논술우수자전형
기출문제 (인문계열 2교시)

※ 본 기출문제는 2014학년도에 출제된 내용이며,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은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가> 발전이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득과 부의 일차성에 집중하는 ‘경제학’, 심리적 효용에 초점을 두는 ‘공리주의(功利主義)’와 같은 전통적인 실용 윤리학에서 말하는 발전과는 대조된다. 이 학문들에서 말하는 발전은 GDP 증가나 개인 소득 증가, 산업화나 기술의 진보, 또는 사회의 근대화 등에 기반하고 있다. GDP 증가나 개인 소득 증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자유의 확장은 사회·경제적 제도나 정치적 권리 및 시민권과 같은 다른 결정 요인에도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화나 기술의 진보 또는 사회의 근대화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부에만 집중하는 것과 우리가 영위하는 삶에 폭넓게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의 차이는 발전을 개념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부가 아니다. 부는 유용하지만 다른 것들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만약 더 많은 부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며,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소득과 부를 원하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과 부 자체가 바람직한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가져다 줄 자유라는 일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의 유용성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부는 우리가 실질적 자유를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부 이외에도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는 자유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삶의 조건과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의 결정적 역할을 인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의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발전에 대한 적절한 개념은 부의 축적, GNP 및 다른 소득 관련 변수들의 증대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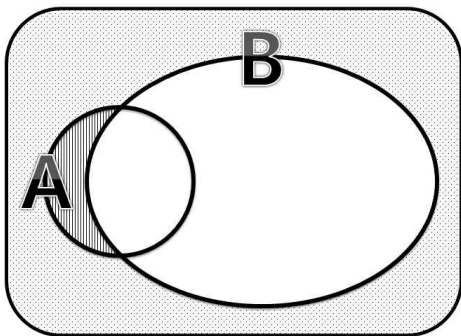
<나> 경제학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합리적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합리적 인간은 소비자로서 제한된 소득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선택한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을 창조한 인물은 공리주의 철학의 원조 제레미 벤담이다. 그에 의하면,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데 있다. 여기서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사회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합친 것이며 입법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가 제시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은 이를 집약한 것이다. 따라서 벤담이 창안한 합리적 인간은 오직 두 가지 사실만 고려한다. 하나는 쾌락(행복, 즐거움, 만족 또는 효용)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불행, 괴로움, 고생 또는 비효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 개념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스스로 잘 아는 개인이 자기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공리주의 철학을 ‘효용함수’라는 것에 담아놓았다. 가장 단순하게는 $U=f(C)$ 로 표기하는 효용함수는 행복의 수준(U , utility)과 재화 소비량(C , consumption)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효용함수에는 “내가 재화를 소비해서 얻는 행복은 오직 나의 재화 소비량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나의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나의 행복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 행복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소비하느냐”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의 소비량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을 경제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기술적 어려움’이다. 나의 행복이 나의 재화 소비량만이 아니라 타인의 재화 소비량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서 분석을 위한 적절한 모형을 만들기 어렵다. 둘째는 ‘평균적 인간’이라는 관념이다. 어떤 분야든 학문은 보편적인 존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경제학 또한 예외적 행동을 하는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론들은 바로 합리적 인간이라는 공리(公理)를 토대로 삼아 엄정한 수학적 증명 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표현의 배후에 놓인 ‘공리주의적 인간관’은 경제학의 철학적 토대를 이룬다.

<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내게 말해보렴.” “너무 부끄러워요.” 씨씨는 마지못해 말했다. “예를 들면 오늘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이 자연의(Natural) 부에 대해 설명했어요.” “내 생각엔 국가의(National) 부일 것 같은데.” 루이자가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이는 겁을 집어먹고 물었다. “선생님처럼 너도 국가의 부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거야.” 루이자는 냉담하고 신중하게 대꾸했다. “국가의 부에 대해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자, 학급이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하자. 이 국가에 오천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이 국가가 부유한 나라가 아니냐? 20번 여학생, 이 국가가 부유한 나라이고 너는 부자나라에 사는 게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루이자가 물었다. “루이자 아가씨, 모르겠다고 했어요. 누가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 얼마라도 제 돈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부유한 나라인지 아닌지, 제가 부자나라에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질문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숫자로 계산된 생각이 아니니까요.” 씨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루이자가 말했다. “그래요, 루이자 아가씨. 이제는 저도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자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은 제게 다시 묻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교실이 커다란 도시라고 가정하자. 시민이 백만 명인데 일 년에 스물다섯 명만이 길에서 굶어죽는다. 그렇다면 그 비율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나 하고 물었어요. 저는, 더 나은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죽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백만 명이든, 백만 명의 백만 배이든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답변 역시 틀린 거지요.” “물론 틀렸지.” “그러자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은 한 번 더 묻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더듬기(stutterings)가 있다고 했어요.” “통계자료(statistics)겠지.” 루이자가 말했다. “그래요, 루이자 아가씨, 그 말은 항상 말더듬기를 상기시키는데, 저의 또 다른 잘못이지요, 해난 사고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십만 명의 선원이 장거리 항해를 떠났는데 그중 오백 명만이 익사했거나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가 죽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가씨, 제가 말하기를,” 이때 씨씨는 자기의 실수를 크게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처럼 심하게 흐느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씨씨?” “죽은 사람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는 그 질문이 무슨 소용이나고 말한 거예요, 아가씨. 저는 영영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아요.”

1. <가>의 관점에서 <나>가 설명하는 바를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의 문제 상황과 연관지어 <다>에 나타난 ‘씨씨’의 생각을 옹호하시오. (1,000±100자)



<그림 1>

<그림 1>은 X 제약회사가 Y 암 치료를 위해 신약 B를 개발하여 기존 치료약 A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상황을 나타낸다. 기존의 Y 암 치료약 A를 투여했을 경우 40%의 완치율을 보인 반면, 신약 B는 임상실험 결과 65%의 완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A로 치료될 수 있었던 극소수 환자들에게 B는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A의 생산이 중단되자 B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Y 암 환자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X 제약회사가 A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생긴 결과였다.

<가>

모든 의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겁 많고 허약한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강력한 힘을
이제는 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참을성 없는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난한 사람은 서서 듣는다
이 세계가 모든 세계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세계이며
자기 방의 천장에 뚫린 구멍도 하느님이 손수 계획하신 것이라고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
이 세계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는 힘들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빈약한 근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잘못 행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위험 속에 머물게 마련이다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된 당신은, 잊지 말아라
당신이 옛날에 지도자들에게 의심을 품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것을 허용하라!

<나> 역사는 항상 기존의 해석에 대한 의심과 도전, 그에 따른 새로운 해석으로 다시 쓰인다. 영원히 확정된 관점은 존재하지 않고 늘 새로운 반론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조선시대 내내 ‘판단이 흐린 임금’이었던 광해군은 20세기 들어와 폭군에서 실패한 합리적 통치자로 재평가되었다. 완벽한 전복. 그런데 이 재평가는 정말 잘못을 바로잡은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왜곡의 시작이었을까?

1921년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역사교과서는 “광해군은 무도하여 폐하여지고, 왕의 조카가 대신 올랐다.”고 서술하여, 조선시대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점과 차이가 없었다. 전복은 일본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 키치에서 시작되었다. 만주사변 두 해 뒤인 1933년, 이나바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광해군을 ‘실용주의 외교로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힌 군주’라고 평가했다. 그는 1619년(광해군 11년) 심하전투 이후의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부활하는 만주와 조선의 관계’라고 반기고, 광해군의 폐위를 비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 이후 국내 학계는 실용주의, 중립외교라는 키워드를 유지하며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어나갔다.

광해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일제강점기에 이어 지금까지 남북한 역사학계를 지배해 왔다. 광해군의 부활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외교에 실패할 때마다 매번 등장하곤 하였다. 심지어 한미자유무역협정마저 해결할 지혜를 줄 수 있는 인물로 광해군을 평가한 글도 있다. 역사 인식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교과서든 대중서든 전문서적이든 가리지 않고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20세기에 광해군이 재평가된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근대주의적 역사관에 의하면 빨리 중세를 해체하고 근대로 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체되었다. 근대가 지체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복권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근대적 역사관에 의하면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가 즉위했던 계해년(1623년)의 반정은 근대를 지체시킨 요인이었다. 인조반정이 부정적으로 인식된 결과, 광해군이 재평가 받으며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사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

은 각각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확한 논리적 장치였던 셈이다.

<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그 스스로까지도 의심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스스로에게는 그 의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도 하나의 ‘~주의’이고, ‘~주의’는 자신의 충직한 신봉자들을 옹호하며, 그런 충직한 신봉자들은 의심을 스스로에게는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를 담아서 상대주의자들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누군가가 무엇을 의심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퍼뜨리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 그 다른 사람의 머리가 너무 낮게 돌지만 않는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견해 역시 올바른지 의심하게 되는군요.’라고 대답하리라.”

일관성 있고 진지한 의심은 모든 ‘~주의’에 치명적이다. 특히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그렇다. 이들 ‘~주의’는 의심을 각자에게 유리하게끔 이용하려고 한다. 이제 ‘일관성 있고 진지한 의심’이라는 차원을 요약해 보자. 의심은 모든 ‘~주의’와 그 충직한 신봉자들에게서(특히 상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에게서) 동떨어져 있다. 소설가 로베르트 무질은 “진리의 목소리는 의심 섞인 낮은 톤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진리는 흔히 부정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신봉된다. 충직한 신봉자는 자신의 존재가 이른바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몇 차례나 ‘증명’된 진리. 그 진리는 의심을 불허한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 진지하고 일관성 있는 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대신 반증을 모색한다. 즉 의심 가능한 경우와 상황을 찾는다. 결국 점진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진리 비슷한 것에 가까이 간다.

2. <다>의 논지를 정리하고,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에 나타난 ‘의심’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